

김 자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의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효과분석

2005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전공

태 동 숙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의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효과분석

김 자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 · 스타일리스트전공

태 동 숙

인 준 서

태동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②인

심사위원 _____ ②인

심사위원 _____ ②인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현대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추럴 풍의 메이크업 경향이 유행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주근깨나 점의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맑고 투명한 피부의 표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깨끗한 피부에 대한 소망이 많은 화장품의 발전을 가져왔고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었다.

그 중에서 여성들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피부 교정의 효과를 내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얼굴에 결점이 있는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의학적 치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기초 단계인 베이스 메이크업은 베이스 제품들을 이용하여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고 피부색을 보정하여, 보다 깨끗한 피부표현의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피부 표현과 얼굴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피부색을 획일화 하여 두껍게 커버 하는 방식의 베이스 메이크업 테크닉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경향은 자연스러운 피부색을 추구하여 좀더 화사하고 맑으며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표현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위해서는 커버력이 좋은 제품으로 얼굴을 덮어서 결점을 감추는 방법보다 피부색의 보정을 통한 착시 효과를 극대화하여 결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피부가 맑아 보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채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색채 원리에 의해 본인에게 어울리는 피부색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통하여 메이크업에서의

색채응용효과와 피부색 보정 및 문제성 피부의 원인과 결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메이크업에서의 색채응용효과와 피부색 보정에 이용한 색채원리는 보색원리를 기초로 한다.

연구는 색채 및 피부 표현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실제 적용 방법을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피부색과 문제성 피부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실제 효과를 확인, 분석하였다.

먼저 건강하고 맑은 피부 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부 톤에 따라 효과적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종류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그 사용법을 조사하였다. 실제 실험에 사용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은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은 제품들로 구성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같은 타입의 피부색에 대해 보정 전 사진과 보정 후 사진의 비교로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촬영은 공동의 광원과 같은 감도를 가진 동일 브랜드의 필름을 사용하는 등 동일한 조건을 유지 하였다.

연구 결과, 바람직한 피부색 보정 및 효과적인 결점 커버를 위해서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보색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 보정 시 메이크업 베이스나 피니싱 파우더 중 하나만 선택하여 보색 대비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기 피부에 맞는 일반적인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표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얼굴에 결점이 있는 문제성 피부의 경우, 파운데이션 단독 사용으로는 결점 커버가 힘들었다. 파운데이션만으로 커버를 할 경우 피부표현이 두꺼워지고 부자연스러웠으며 멍치는 결과가 나왔다. 주근깨, 기미, 다크 써클, 반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모두 컨실러 제품이 필요했는데 문제 부위를 컨실러를 사용하여 커버 하였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6
1. 피부 표현을 위한 이론적 배경	6
1) 피부 보정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종류	6
2)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 및 피부 보정의 역할	7
2. 피부색의 결정 요인	12
1) 피부색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13
2) 피부색의 분류	16
3) 문제성 피부의 분류	17
III.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효과 분석	20
1. 피부색에 따른 보정 실제 분석	20
2.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피부색 보정	25
3.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문제성 피부의 피부색 보정	37
IV. 결론 및 제언	45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피부 톤을 보정하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적용	8
<표 2> 파운데이션의 종류	9
<표 3> 결점을 커버하는 컨실러의 적용	10
<표 4> 컬러 파우더의 피부보정	11
<표 5> 색상 구분	16
<표 6> 명도 구분	16
<표 7> 채도 구분	17
<표 8> 피부색 진단 과정	26
<표 9> 15가지 피부색 color	27

사진 목차

<사진 1> 흰 피부,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29
<사진 2> 노란 피부, 실험 모델 B,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31
<사진 3> 붉은 피부, 실험 모델 C,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33
<사진 4> 어두운 피부, 실험 모델 D,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35
<사진 5> 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37
<사진 6> 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B,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39
<사진 7> 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C,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41
<사진 8>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43

도 목 차

<도 1> 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30
<도 2> 노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32
<도 3> 붉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34
<도 4> 어두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36
<도 5> 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38
<도 6> 주근깨와 다크써클이 있는 문제성 피부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40
<도 7> 기미, 주근깨가 있는 문제성 피부에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42
<도 8> 주근깨, 반점이 있는 흰 피부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4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은 대중 매체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미를 추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신체의 건강과 미적 추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원시시대부터 자기 보호 기능뿐¹⁾ 아니라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자기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인류의 문화가 형성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의 미(美)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되어 왔다.

21세기 현재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이크업 경향도 자연미를 중시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하얗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얼굴의 결점이나 잡티를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가능한 가림으로써 안색을 화사하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향은 분으로 대표되고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파운데이션의 경우는 초기엔 크림타입과 리퀴드 타입 정도였지만, 70년대 중반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 고센에서 물에 적시면 크림타입이 되고 마른채로 쓰면 파우더 타입이 되는 투웨이 케익을²⁾ 개발하면서 파운데이션의 형태가 좀더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기

1) 김광숙, 외3역, 「THE MAKE UP」, 도서출판 예림 2002, p.15

2) 김희숙, 「신화장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03, p.175

술적 발달과 더불어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더불어 출시되었으며 메이크업 방법과 기법에 따라 그 효과 역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베이스 메이크업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특히 파운데이션의 피부표현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파운데이션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는 여성들도 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거리에서 얼굴과 목의 경계선으로 마치 인공적인 마스크를 쓴 것 같아 보이는 여성들, 굵힐 것 같이 두꺼운 파운데이션에 주름이 강조되어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여성들과 어두운 피부에 맑은 파운데이션으로 인한 얼룩화장을 한 여성을 볼 때가 있다.

두껍고 짙은 메이크업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최근 유행 경향의 피부표현은 깨끗하고 결점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강조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미백을 위해 하얗게 덧칠한 얼굴이나 결점을 감추기 위해 마치 마스크처럼 두껍게 칠한 메이크업은 과거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하여 개인의 피부색 판단을 통한 가장 효과적인 피부색 보정 방법과 문제성 피부의 결점 보완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좀 더 많은 베이스 메이크업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각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피부색에 대한 판단은 색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색채 원리에 기초하였다. 또한 개인의 피부색이나 얼굴 결점에 대한 적절한 베이스 용품사용법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색채이론에 입각한 가장 효과적인 피부색 보정법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많은 여성들은 스트레스나 과도한 자외선 노출, 출산으로 인해 얼굴에 결점들이 생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외모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얼굴에 불만

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많은 여성들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얼굴의 결점들을 감추기 위해 사용 돼오던 과거의 두텁고 단순한 커버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색채이론에 따른 보다 정확한 제품 사용과 테크닉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깨끗한 피부의 표현과 얼굴의 결점들을 보정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적 이론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적용실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이론을 통해서 색채학에서의 보색의 정의와 피부색 보정에 있어서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의 분류, 사용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적용실험을 위해서 연구 사례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피부톤 및 문제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실제 적용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 4명과 얼굴에 결점이 있는 문제성 피부를 가진 4명의 사람을 선정 하였다. 먼저 피부색 보정의 경우, 흰 피부의 사람(7.5YR8.0/3.0), 노란 피부의 사람(7.5YR7.0/4.0), 붉은 피부의 사람(7.5YR6.0/4.0), 검은 피부의 사람(5.0YR6.0/4.0)으로 나누어 피부색 보정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문제성 피부의 실험대상으로는 흰 피부(7.5YR8.0/3.0)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 흰 피부에(7.5YR8.0/3.0)주근깨와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 흰 피부에(5.0YR8.0/3.0) 기미와 잡티가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노란 피부에(7.5YR7.0/4.0) 주근깨와 검버섯, 반점이 있는 사람을 선정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의 총 4개 제품군으로 나누어 분류한 후 각 제품의 특성 및 사용법을 고찰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연구 결과는 비교 사진으로 제시하였는데 동일한 타입의 피부색에 대해 보정 전 사진과 보정 후 사진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촬영은 동일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진촬영은 같은 장소에서 단일의 카메라(CANON eos1-1)로 색온도를 맞추기 위한 동일한 표준 광원(5500K, 사진전구, 도시바)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맑은 날 정오 무렵의 태양광 아래에서 보는 효과와 동일하며 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사용 필름 또한 데이라이트(daylight) 타입의 동일한 브랜드의 필름(코닥, ISO, 200)으로 제한하였다.

2) 연구 구성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을 제시하고, 방법 및 제한점을 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피부표현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의 분류와 그 사용법을 제시하고, 피부색의 분류와 문제성 피부의 원인 및 증상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였다. 또한 문제성 피부와 피부 톤별로 적절한 보색원리를 응용한 피부적용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관련 서적과 학위논문, 실전 테크닉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는데 피부타입과 피부 톤에 따른 색채학적 보색원리를 응용한 제품사용법의 정리를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실제적용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결론 및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피부색 수정에 관한 효과 분석에 대해 고찰 하였으나 사람에게는 각각의 피부색이 존재하기에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적용을 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몇 사람에게만 한정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 대한 피부색 수정의 효과 분석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실제 적용 효과분석에 대한 비교 자료가 미비한 실정으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통한 인상이나 이미지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 표현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메이크업은 즉, 피부표현 화장은 전체 메이크업 효과의 약 80%를 결정해 줄 정도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³⁾

색조 메이크업의 시작인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색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기초 제품으로 커버 할 수 없는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한층 더 화장을 메이크업 시켜주는 기능을 가졌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하거나 기미, 주근깨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피부보정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종류

- ① 프라이머(primer)-메이크업 베이스에서 좀더 세분화 되어 발전된 형식으로 피부위에 미세한 요철을 메워주어 실크 같은 피부막을 만들어 준다.
- ② 메이크업 베이스(make up base)-1차적 피부의 톤을 정리해 주고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의 중간 단계로서 피부에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방지 파운데이션이 들뜨거나 피부에 주는 부담감을 방지한다.
- ③ 파운데이션(foundation)-화사한 피부 표현을 위해 결점과 잡티를 커버해 주며 피부를 균일하고 생기 있는 톤으로 정리해 주며 외부 자극으로

3) 김덕록, 「화장품과 화장품」, 서울 도서출판 담계. 1997, p.430

부터 보호한다.

- ④ 컨실러(concealer)-피부의 결점을 커버하기 위해 파운데이션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여 두드러지는 피부의 결점과 잡티, 다크써클 등을 효과적으로 커버해 준다.
- ⑤ 파우더(powder)-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피부에 잘 밀착시켜 화장의 지속성을 주면 메트한 마무리로 깔끔함과 번짐을 막는다. 또한 진해진 색조를 톤다운 시켜준다.

2)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기능 및 피부 보정의 역할

① 프라이머(primer)

프라이머는 매끈한 피부를 위한 실리콘 베이스 제품이다. 이 실리콘 유도체를 함유한 가벼운 반투명 젤 타입의 프라이머 제품들은, 빛을 가볍게 난반사하여 얼굴의 미세한 주름이나 결점들을 매끈하게 커버해주는 효과를 나타낸다.

② 메이크업 베이스(make up base)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스킨케어와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메이크업 단계사이에 채겨주는 필수 코스로 영양 공급을 끝낸 피부를 다시 한번 다독여 주면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이다.⁴⁾ 요즘은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추가 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

4) 이경민, 「이경민 뷰티 메이크업 북」, 서울 김영사, 2001, p. 26

이 날로 다기능화 되어 가고 있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종류에는 크림타입, 리퀴드 타입, 젤 타입이 있다.

<표 1>피부 톤을 보정하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적용⁵⁾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	적용 피부	보정 색상	적용 후 느낌
green, blue	모세혈관이 확장, 여드름 피부	red	붉은 색감 중화
violet	칙칙한 피부	yellow	화사한 고른 피부톤
pink	혈색이 없는 창백한 피부	light green	화사한 피부톤
orange	톤이 불균형한 검은 피부	light blue	썩텐한 듯 건강한 피부톤
yellow	검은 피부	dark 멜라닌색소	밝은 톤의 피부
white	피곤해 보이는 피부, 투명 메이크업의 톤조절	black	젊고 탄력있는 피부
transparency	어느 피부 든 무난함	.	피부정돈

③ 파운데이션(foundation)

파운데이션의 기능은 여드름 자국, 넓어지는 모공, 기미나 반점과 같은 갖가지 흠이 생긴다. 이러한 결점들을 감추고 피부톤을 조절하여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선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얼굴에 발라보고 선택 하여야한다.⁶⁾

5) 최민령 외 4역, 「The Beauty Make-up」, 서울 예림, 2004, p93

6) 중앙 일보사, 메이크업, 「중앙일보사」, 1995, p.51

<표 2> 파운데이션의 종류

크림 파운데이션	정도 오일 성분의 함유로 유분감이 있어 촉촉하고 윤기 있다. 잡티가 많은 피부, 나이든 피부, 건성피부에 좋다.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용감이 산뜻한 로션타입이다. 어느 피부에나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 적당한 커버력과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표현 된다.
스틱 파운데이션	커버력이 좋다. 스피디 메이크업시 용이하다.
케이크 파운데이션	부담 없이 간편하게 사용되며 스피디하며 휴대가 간편하다. 커버력이 좋으며 물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냥 사용한다.
틴티드 모이스처 라이저	파운데이션과 메이크업 베이스의 중간제품이다. 커버력은 약하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 효과적이다.
젤 파운데이션	피부색을 교정해주는 정도의 산뜻하고 가벼운 질감이 다. 지성피부에 좋으며 투명 메이크업 시 적당하다.
무스 파운데이션	거품처럼 짜서 바른다. 얇게 발리고 흡수력은 좋으나 커버력은 떨어진다.
스킨커버	일반제품 중 커버력이 가장 좋으며 유성타입으로 약 건성 피부 적당하며 컨실러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란	그리즈 페인트(grease paint)라고 하며 무대화장, 영화촬영용으로 사용한다. 피짐성, 발림성, 부착력, 피복력이 뛰어나다.
무스 파운데이션	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방수효과가 뛰어나다, 얇게 발리고 번들거리지 않는다. 비치용이나 싱크로나이즈드 선수 메이크업 시 사용 적당하다.

④ 컨실러(concealer)

컨실러의 기능⁷⁾은 얼굴의 잡티나 모양상의 결점을 모두 가릴 수 있는 제품이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드름 자국, 다크써클, 꺼진 이마, 낮은 코등의 결

7) 김광숙 외3역, 「THE MAKE UP」, 도서출판 예림 2002, p.97

점과 지지분한 잡티를 다 커버해주는 유용한 제품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위한 필수적 제품이다. 컨실러의 종류에는 스틱, 펜슬, 케이크, 크림, 리퀴드탑이 있다.

<표 3>결점을 커버하는 컨실러의 적용⁸⁾

결점	제품 특징	포 물 러	사 용 법	브러시	테크닉
다크 서클	건조한 느낌의 컨실러는 눈 주위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 가볍고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	피부톤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보다 한 단계 밝은 색을 선택하고 베이지계열은 디크서클에 발랐을 때 칙칙한 회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렌지계열을 선택한다.	눈주위를 매트하게 정돈한 후 바를 때는 컨실러 브러시를 사용한다. 손가락으로 펴바를 때는 눈 주위 피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넷째손가락 끝을 사용한다.	끝 부분이 얇고 돼지 털처럼 탄력있는 둥근 끝 모양 브러시를 사용한다.	눈머리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 뼈깎쪽으로 펴바른다.
여드름 자국	오일 프리에 피지 조절기능이 있는 제품 살균효과가 있는 살리실릭산성분을 함유하고있는 제품	피부색과 같은 색 즉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같은 톤의 컨실러를 선택하고 붉은 기를 중화시키는 노란색이나 그린색 느낌의 포물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피부색과 같은 톤 조절을 위해 컨실러 파운데이션을 혼합해 적당한 컬러매치, 결점 위에 점으로 찍힌 컨실러를 다른 깨끗한 붓으로 얇게 두드리며 펴 발라 준다.	끝이 가는 브러시 스펀지 타입이나 면봉을 사용한다.	컨실러를 묻혀 점이 찍히듯이 그 부분에만 톡톡 두드리듯이 바른다.
얼굴 홍조	코 부위는 민감하여 오일 프리타입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	붉은기를 중화시켜주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컬러를 선택하고 쉽게 펴 발리며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과 피부에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 한다.	붉은 부분이 넓은 경우 피부톤 보다 한 단계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른 다음 파운데이션 위로 보이는 붉은 부분에 노란기가 도는 컨실러를 두드리듯 발라 준다.	손 끝 또는 스펀지를 반으로 접어 사용한다.	그린 계열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톤 조절 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주근깨와 검버섯	커버력이 뛰어나고 빛 반사색소를 함유한 제품	색소 침착을 가리려면 크림 타입이나 스틱 타입처럼 좀더 뽀뽀하다 싶을 정도의 포물러가 좋다.	커버부위가 적을 시 컨실러를 점찍듯 바른 후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며 커버 부분이 넓을 시 짙은 파운데이션으로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한후 두드러지는 부분만 커버한다.	끝 이 가 는 브러시 스펀지 타입, 새도 타입	커버력이 높아 멍치기쉬우므로 바른 후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⑤ 파우더(powder)

8) 설현진, ‘피부색 보정을 통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피부표현 기법 연구’, 「한국 인체예술학회」 제 4권 제1호, 2003, p.231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난 뒤 피부표현의 마무리로 파우더를 바른다. 파우더를 바르는 목적은 피부에 잘 밀착 시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연장 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약간의 커버효과와 그리고 얼굴의 번들거림을 없애는 것이다. 파우더의 종류에는 가장 본적인 파우더의 루즈 파우더(loose powder), 압축 형제품의 프레스드 파우더(pressed powder), 펄 성분의 하이라이트 파우더(highlight powder)가 있다.

<표 4>컬러 파우더의 피부보정⁹⁾

파우더 색상	보정색상	적 용
yellow	violet	썩텐 피부, 까무잡잡한 피부에 적합
violet	yellow	노란색을 중화시키는 역할, 혈색 없는 노란피부에 적합
green, blue	red	커버력이 좋아 잡티가 많은 피부, 전체적 붉은 기운의 피부에 적합
pink	blue	얼굴에 붉은 기운으로 건강한 느낌, 신부화장이나 드레시한 스타일에 적합
peach	tone point	내추럴 메이크업 후 포인트 줄때 적합, 부분적 새딩이나 전체적 피부 톤 표현
orange	blue ,violet	아마와 콧등 부분의 하이라이트에 적합, 다크서클 커버와 투명한 느낌을 줌
beige(natural)	tone down	일반적인 색상,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차분하게 해 준다.
white	tone up	하이라이트, 다크서클 커버, 투명 마무리

9)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Artistic Publishing company),2002, p.28

2. 피부색의 결정 요인

인간의 피부색은 성별, 개인차, 연령, 계절 및 부위에 따라서 도는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등의 감정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피부색이 적색(헤모글로빈), 황색(케로틴), 갈색(멜라닌) 이라는 이 3가지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적색, 황색, 갈색의 3가지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피부색은 일차적으로 멜라닌, 혈관분포와 혈색소, 카로텐 및 각질층의 두께 등 여러 가지 생체학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지며 이중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백인종, 흑인종 피부색 차이는 색소 세포의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색소 세포의 멜라닌을 만드는 작용에 차이에 의한다.¹⁰⁾

백인의 표피는 일반적으로 얇으므로 비교적 혈액의 붉은색이 잘 투시되는 상태이고, 황색 인종에서는 피부 색소 속에서 유층에 포함된 케로틴 황색소가 비교적 많으므로 노랗게 보이는 상태이고, 흑인에서는 기저층의 멜라닌 색소인 갈색이 매우 많은 상태이므로 유난히 검게 보인다.¹¹⁾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이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감에 따라 달라지며, 그때그때의 건강상태가 얼굴 피부색에 그대로 나타나므로 피부색은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피부색은 표색계의 색입체에서 색상은 Y, YR, R의 계열¹²⁾ 범주안에서 배

10) 김병우, 「피부과학, 향장품학」, 서울 유신문화사, 1993, p. 35

11) 유명미,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미용학회지」, 2002, 6(2), p.88

치하였다. R요인은 혈색, Y요인은 케로틴, 명도의 결정요인은 멜라닌 색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부색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피부색은 인종에 따라 각 다른 지역에 따라 다르고 환경, 기후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색을 분류하기위해 정리해보았다.

인간의 색을 처음 발견한 Robert Dorr(1905-1980)는 사람은 피부색에 두 가지 색의 기초 (Tone, 두 가지 기본색) 를 따뜻한 색과 찬색으로 분리하였다. 그는 많은 교육현장과 스텐포드, USC, UCLA 대학에서 그의 색 이론을 입증하였다.

그의 Color Keys 기본색은 오늘날 컬러 분석기들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그의 시스템은 지금은 두 가지 영역에 활용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피부 톤인 푸르거나 금빛을 반사하는 톤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에 의해 Color Key System: 마젠타의 조화와 블루의 조화 그리고 오렌지의 조화와 금빛의 조화로 나누어지고 있다.¹²⁾

McJimsey¹⁴⁾에 하면 찬색피부의 특징은 밝고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눈과 피부 밑에 약간의 불그레한 색조를 가진다. 붉으레한 피부는 연한 피부로 얼굴을 붉히면 쉽게 붉은 자색으로 된다. 따뜻한 피부 색조는 옅은 아이보리에서 짙은 올리브나 갈색톤에 이르기까지 명도가 다양하다. 즉 갈색빛 금발

12) 한국 색채학회,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국제, 2002, p.23

13) 신향선.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2, p. 17

14)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1973, p.214

과 선명한 갈색모발은 검은 기미가 두드러진 오렌지빛 피부색조를 기본적인 노랑 즉 크림색을 띤다.

Mathis와 Connors¹⁵⁾에 의하면 피부는 황갈색이나 아이보리 색이고 모발과 눈동자는 황금 갈색을 지닌 비교적 노란빛을 많이 띤 사람을 따뜻한형으로 분류하였고, 피부가 보라와 장밋빛이 도는 갈색이며 모발은 찬 회색빛을 지닌 갈색, 눈동자색은 청회색과 푸른빛을 지닌 사람을 차가운 형이라 하였다. 개인 색채의 각 요소에서 노란색과 푸른색 기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Nicholson¹⁶⁾은 피부색을 4종류로 분류하였다. 피부색이 베이지색을 기본으로 하고 모발색이 금발이나 갈색을 지닌 사람들을 차분한 형이라 하였으며 미국여성의 1/4이상은 차분한형에 속한다. 그리고 피부에 핑크빛이 있으며 모발이 잿빛을 띤 사람을 온화한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피부나 모발에 황금빛이 많으면 화사한형이고, 피부가 깨끗한 베이지나 아이보리색이고 모발이 짙은 갈색이나 검정이면 즉 피부와 모발의 대비가 강한 사람은 대비형에 속한다. 또한 차분함과 대비 같은 4가지유형이 서로 혼합된 유형도 있다고 하였다. 하고 모발이 금발이나 갈색을 지닌 사람을 차가운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케롤 잭슨(Carole Jackson)¹⁷⁾은 1980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유색 즉,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색 등을 타고난 신체 색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그는 신체의 3색소인 헤

15)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The Triumphys of Individual style, Cail, Colombia, 1994. p.113

16)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pueline Thompson, Color Wonderful, Bantam Books, 1986. p. 59

17) Jackson, Carole, 「Color me beautiful」. Canada:Acro polis Book, 1980, p. 38

모글로빈, 케로틴, 멜라닌의 분포에 의해 피부색이 형성되고 개개인의 특유의 피부톤이 3가지 색소에 의해 따뜻한 톤의 피부와 차가운 톤의 피부로 구분하고 따뜻한 톤의 피부는 노르스름한 (golden undertone) 으로 봄과 가을로, 차가운 톤의 피부는 푸르스름한 톤 (blue undertone)으로 여름과 겨울로 구분 하였다.

이선주는¹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보이는 피부색을 원한다. 피부의 명도가 얼마나 밝으나 또는 어두우냐에 관계없이 색상과 채도는 대체로 건강과 연상된다. 빨강쪽으로 기우는 기본 색상들은 좋은 건강 상태를, 노랑은 비정상적으로 나쁜 건강 상태를 표현한다. 채도가 선명할수록 좋은 건강 상태를 채도가 탁할수록 체질이 약한 또는 민감한 체력, 병에 걸린 상태를 표현한다.

피부 톤은 혈색은 없으나 희고 화사해 보이는 피부, 희고 붉은 피부는 희면서 붉은 피부, 노르스름한 피부는 노르스름하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피부, 짙은 황갈색 피부는 전체적으로 검어보이는 피부로 구분 하였다. 피부의 색상 구분은 10.0R을 핑크로 백인에 가까운 피부, 3.0YR을 내츄럴핑크로 핑크 느낌의 피부 6.5YR을 크림으로 한국인에 많은 보통 피부, 10.0YR를 크림으로 황갈색기미의 피부로 구분하였다.

피부에 명도 구분은 7.5~8.0은 흰 얼굴로 7.0은 보통 얼굴로, 6~5는 검은 얼굴로 구분하였다. 피부의 채도 구분은 2는 맑지 않은 혈색 3~4는 건강한 색, 4~5는 혈색이 좋은 색으로 구분하였다.

18)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효과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0, p.9

2) 피부색의 분류

피부색의 분류는 색채학 상의 분류로 얼굴색이나 피부색이 모두 유채색 범위에드는 한 색이 3속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먼셀 표색계의 기인한 분류방법¹⁹⁾으로 먼셀 표기법에서 어느 피부색은 3YR7/3으로 표시한다. 3YR은 색상, 7은 명도를 3은 채도를 나타낸다. 먼셀색상의 10.0R~10.0YR의 범위는 한국인(동양인)이 피부색상의 분포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채도의 구분은 색상, 명도, 채도의 순에 따른다. 채도라는 것은 원래의 색상의 강함, 둔함의 정도를 꼽은 요소이나 이것을 혈색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5> 색상 구분²⁰⁾

먼셀 색상	색 별	피부색 구분
10.0YR	핑크	백인에 가까운 피부
3.0YR	내추럴	핑크느낌의 피부
6.5YR	크림	한국인에 많은 보통 피부
10.0YR	크림	황기미의 피부

<표 6> 명도 구분²¹⁾

먼셀 명도	피부색 구분
7.5/ (화장한 얼굴이면 8.0도 있다.)	흰 얼굴
7.0/	보통 얼굴
6~5/	검은 얼굴

19) 이상봉 외1,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청구 문화사, 2004, p.53

20) 김용훈, 「색채와 디자인」, 서울 세진사, 1994, p.116

21) 전계서, p.116

<표 7>채도 구분²²⁾

면셀 명도	피부색 구분
/2	맑지 않은 혈색
/3~4	건강색
/4.5	좋은 혈색

3) 문제성 피부의 분류

오늘날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으로 메이크업이나 색조화장이 진해져 피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적 변화에 의해 다양한 문제성 피부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성 피부에는²³⁾ 여드름, 예민성 피부, 노화 피부, 색소이상 피부, 알레르기성 피부, 모세혈관확장증, 주사 등이 있다.

따라서 문제성 피부 중, 색소 이상으로 인하여 과색소침착으로 유발되고 있는 점(모반), 기미, 주근깨, 흑자에 대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① 주근깨(Freckles, 작란반)

주근깨는 노란색, 갈색, 혹은 회색을 띤 깨알같은 반점으로 여러 형태를 가졌고 주로 얼굴이나 손등, 앞가슴 등에 뚜렷한 경계 없이 근접하여 생기고 일반적으로 작고 둥글며 뚜렷한 경계를 지니지 않은 모양을 하고 있다.²⁴⁾

22) 전계서, p.116

23) 김영은,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제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p.28

24) 김기연 외9역, 「피부과학」, 발행인, 주용식, 서울 수문사, 2001, p.116

대체로 유전적인데 유아기에 없다가 7세 이후에 피부가 자외선에 정기적으로 노출 되면서 생겨나고 봄철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늦가을 경에는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한다.

이 질환은 기미와 달리 조직학적으로 색소 형성세포 수에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일광에 노출되었을 때만 항진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흰 피부를 가진 여성, 특히 백인 피부에 많이 나타나고 기미를 동반 할 수 있다.

치료 및 관리 방법으로는 화학적 박피술이 이용되며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여야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부가 일사 광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삼가고 차단지수 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기미(Melasma, Chloasma, 간반)

기미는 연한 갈색 또는 암갈색, 흑갈색의 다양한 크기와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과색소침착질환이다.

기미는 주로 색소반이나 얼굴의 뺨, 이마, 상순, 턱, 코 목 부위 특히 일광 노출 부위에 대칭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색상이 간장 표면의 색상과 비슷하다는 전에서 간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기미는 성인이나 인종등에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대개 25세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남성의 경우 여성의 10% 정도 드물게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부에게서 많이 발견된 수 있어 'Mask of pregnancy' 라고²⁵⁾ 불리운다.

25) 김봉인 외4역, 「 피부과학」, 서울 형설 출판사 2001, p.76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원인 발생하는데 피부가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나타나고, 유전적인 요인이 약(30%이상), 임신으로 인해서 (50~70%) 발생한다고 한다. 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경구 피임약에 함유)과다, 프로게스테론(황체 호르몬) 과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도 기미 발생 할 수 있다.

치료 및 관리 방법으로는 자외선 피부노출을 피하고 차단지수 15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또한 비타민C를 함유한 음식과 화장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사용한다. 또한 경과민성 약물이 복용을 중지하고 경구 피임약 등 내부적 원인 유무를 발견 하도록 한다. 치료방법으로 표백제, 화학적 박피, 레이저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미는 재발이 되기 쉬운 색소 이상 질환이며 치료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예방법이 더 중요하다.

③ 흑자 (Lentigo)

단순흑자와 일광 흑자가 있는데 26)단순 흑자가는 경계가 명확하고 갈색 또는 검은색을 보이는 둥근 반점이 한 개도는 몇 개가 체표면이나 점막의 어느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일광 흑자는 햇볕에 오래된 사람의 이마 점막의 어느 곳에서도 생길 수 있다. 체로 50대 이후에 발생하므로 노인성 흑자라 불리 우며 양성이다.

26) 조기여외6역, 「피부과학」, 서울 도서출판 성화, 2001, p.167

Ⅲ. 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효과 분석

1. 피부색에 따른 보정 실예 분석

자신의 피부상태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가 지나친 건성이거나 지성, 혹은 톤이 고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잡티나 뾰루지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다거나 주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중에는 주름살을 제거하고 피부를 좋게 하며 피부톤도 고르게 정돈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자신의 결점이 피부에 있다면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완벽한 바탕을 만들 수 있다.

여기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피부 색 보정과 결점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1) 피부색 보정 분석

이경민의에²⁷⁾ 의하면 흰 피부, 노란 피부, 붉은 피부, 어두운 피부 타입 별로 나누어 메이크업 피부색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제시하고 있다. 메이크업 테크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7) 이경민, 「이경민, 뷰티 메이크업 북」, 서울: 김영사. 2001, p.49 ~ p.55

① 흰 피부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하얀 피부는 자칫하면 창백하고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생기 있게 표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부 표현을 할 때 너무 색깔이 강한 제품을 쓰면 피부가 얼룩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가능한 피부 톤과 같은 화이트색이나 투명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파운데이션은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라이트 베이지나, 옅은 핑크색이 도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한다. 컨실러는 파운데이션 보다 한톤 밝은 색을 선택하여 하이라이트를 준다. 파우더는 혈색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옅은 핏치빛이 섞인 파우더나 투명 파우더로 마무리해준다.

② 노란 피부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기가 도는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핑크 혹은 연보라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 화사함을 더 해준다. 파운데이션은 자신의 얼굴에 맞는 색을 선택한다. 컨실러는 자기가 선택한 파운데이션 색보다 한톤이나 두톤정도 밝은 색을 선택한다. 파우더연보라색 계열을 쓰되 메이크업 베이스나 피니싱 파우더중 하나만 선택하여 쓰도록 한다.

③ 붉은 피부

피부층이 너무 얇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경우, 또는 여드름성 피부는 붉은 색을 띤다. 이 경우 붉은 색을 보정 하여 깨끗하고 차분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블루나 그린 계열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붉은 색의 피부를 보정한다. 파운데이션은 베이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준다. 컨실러는 옐로가 가미된 미색 계열의 라이트 베이지 혹은 미색의 컨실러로 피부톤을 수정해준다. 파우더옐로가 가미된 베이지로 마무리해주면 깨끗하고 차분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

④ 어두운 피부

어두운 피부는 섹시하지만 자칫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다. 칙칙한 피부톤을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옅은 핑크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다.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을 핑크 빛이 도는 밝은 색을 쓰면 피부가 들떠 보이므로 주의한다. 중간 톤의 베이지 계열이나 피부톤에 맞는 어두운 세이블 베이지나 골드 톤이 약간 함유된 파운데이션을 써도 좋다. 컨실러 자기 피부색 보다 한 톤 정도 밝은 색을 사용한다. 파우더 역시 골드톤이 함유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한다.

2) 문제성 피부 보정 분석

Grimas제품 회사²⁸⁾와 바비 브라운에²⁹⁾ 의하면 문제성 피부의 피부색보정과 얼굴의 결점 부위 커버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8) Grimas, 「Make-up voor professional en hobby」, Haarlem. 1992, p.116~p.127

29) Bobbi Brown, 「Beauty Evolution」, Harper Collins, 2002, p.130~p.144

① 여드름과 다크서클

얼굴의 붉은 부분을 그린색 카무플라즈를 덜어내어 얼굴의 여드름 부분에 얇게 바른다. 피부색 보다 한 단계 밝은 카무플라즈를 덜어내어 부드럽게 섞은 다음 눈주위 어두운 부분을 바른다. 파우더로 마무리 한다.

② 백반증

세안을 하여 과도한 오일막을 제거 한다. 피부색에 맞는 카무플라즈를 얼굴의 흰 부분에 라텍스 스폰지를 이용하여 두드리며 바른다.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잘 펴 바른다. 피부색에 맞는 파우더로 마무리 하고 다시 픽싱 파우더를 바른다. 10분뒤 과도하게 발라져 있는 파우더를 붓으로 털어 내어 마무리 한다.

③ 다크서클

피부에 빨리 스며드는 가벼운 느낌의 아이크림을 소량 발라서 눈 밑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다. 피부가 건조하면 컨실러가 뭉치거나 주름이 강조될 수 있으니 주의 한다.

컨실러는 브러시나 검지를 이용해서 컨실러를 얇게 발라 잘 스며들게 하고 눈 아래 눈썹라인과 눈의 안쪽 모퉁이까지 발라주도록 한다. (다크서클 뿐만 아니라 불긋불긋한 부분에도 빠짐없이 발라준다.) 눈꺼풀 위에는 컨실러를 바르지 않는다. 잘못하면 눈꺼풀에 주름이지기 때문이다. 컨실러를 바른 후 손가락으로 살살 두드리주면서 피부에 스며들게 한다. 이때 컨실러를 문질러서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한다. 그래도 다크서클이 보인다면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컨실러를 다시 발라주는데 이때도 살살 두드리면서 눈 아래 부분에 주름이지지 않게 유의한다. 컨실러를 제대로 스며들게 한 후 얼굴의

나머지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 퍼프를 이용해 연한 옐로 파우더로 컨실러를 바른 부분과 눈꺼풀에 바른다.

④ 잡티

파운데이션은 자신의 얼굴에 꼭 맞는 크림타입이나 스틱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컨실러 브러시에 묻힌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떨어진다.)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잡티 위에 컨실러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잘 스며들게 한다. (문지르지 말 것) 파우더는 소량의 파우더를 퍼프에 묻혀서 두드리듯 발라 고정 시킨다.

⑤ 주근깨

컨실러는 옐로 톤으로 자신의 피부보다 한 단계 연한 색상의 컨실러를 바른다.

파운데이션은 주근깨를 가리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데이션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얼굴에 반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되니 주의해야한다.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파운데이션은 약간 커버력이 있으면서 투명한 느낌을 주는데 주근깨가 약간 드러나 보이지만 이런 유형에는 가장 적합하다.

2.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피부색 보정

1) 피부색의 보정

① 피부색 측정 방법

본인의 피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측색기를 통한 측정과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육안 측정 방법으로는 손목 안쪽을 확인 해보면 된다. 또한 손바닥 끝부분 색상과 뒷머리 두피색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색상별로 구분하여 컬러진단 천을 이용해 피부색 변화를 측정, 구분하는 방법으로 피부색을 4계절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분광 측정기를 통한 방법은 측색기를 통해 HVC 값, 즉 색상 명도, 채도, 값을 측정하고 L*,a*,b* 값을 통해 적색도와 황색도를 분류하여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 4명과 얼굴에 결점이 있는 문제성 피부를 가진 4명의 여성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효과 분석을 위해서 먼저 정확한 피부색 진단 후 실험에 임하였다.

피부색은 색의 3속성 중 명도에 따라 흰 피부, 보통 피부, 검은 피부등 구분 할 수 있으며, 한국여성의 피부색은 <표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먼셀색상의 10.0YR ~ 10.0YR의 범위의 피부색 색상의 분포도로 간주되고 있다.

정확한 피부색 진단을 위하여 육안 측정방법을 선택하였다. 피부색 진단을 위한 육안측정 방법이 하나인 일본(발행: 일본 색 연구사업 주식회사) 칼라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법에 의해 피부색을 측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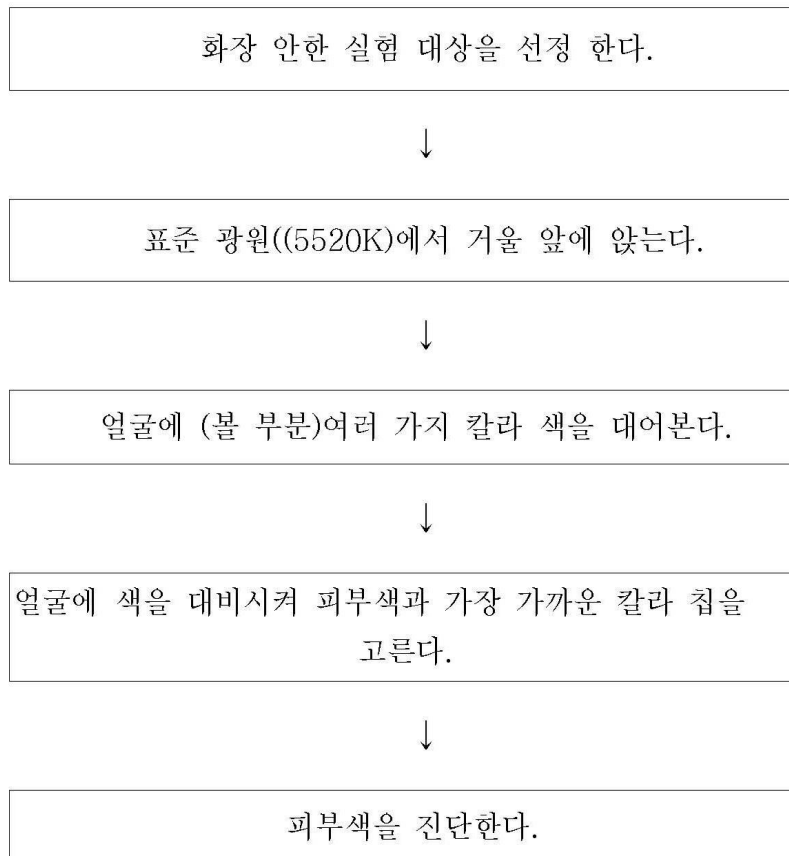
진단을 행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조명의 상태이다. 실험에서는 인공태

양 조명등인 SOLAX(평균 상관 색온도 5520K)를 이용하지만 직사광선이 아닌 대낮의 자연광 아래나, 백색형광등(약 5000K) 정도의 색온도에서도 상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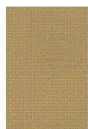









육안측정법은 피 진단자에 대해 진단자가 보고 느끼는 색에 의한 피부색, 머리카락, 분동자의 외적 요인을 분석 한다.

피부색은 컬러 카드를 뺨에 가까이 대고 실제의 피부색과 카드의 색을 비교한다. 피진단자의 붉은 빛이 강한 경우는 붉은빛의 영향이 적은 부분으로 비교하는, 즉 맨살의 상태로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 피부색 진단 과정



<표 9> 15가지 피부색 color³⁰⁾

P 핑크계열	N 내추럴 계열	O 황갈색 계열 (yellow)	B 브론즈계열 (brown계열)
P-I 2.5YR8.0/3.0 	N-I 5.0YR8.0/3.0 	O-I 7.5YR8.0/3.0 	B-I 2.5YR5.5/5.0 
P-II 2.5YR7.0/4.0 	N-II 5.0YR6.0/4.0 	O-II 7.5YR6.0/4.0 	B-II 7.5YR7.5/5.0 
P-III 2.5YR6.0/4.0 	N-III 5.0YR6.0/4.0 	O-III 7.5YR6.0/4.0 	B-III 7.5YR7.5/2.0 
그 외	이상적인 피부색 1.5YR7.5/3.5 	건강한 피부색 2.5YR6.5/4.5 	창백한 피부색 10.0YR7.5/2.0 

30) 일본 색채학회, 발행: 일본 색 연구사업 주식회사

2) 실험 연구 적용 방법

본 연구는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피부색 진단을 거친 8명의 여성에게 시술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파우더의 총 4개 제품군으로 나누어 분류한 후 각 제품의 특성 및 사용법을 고찰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을 위해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 4명과 얼굴에 결점이 있는 문제성 피부를 가진 4명의 사람을 선정 하였다. 먼저 피부색 보정의 경우, 흰 피부의 사람(7.5YR8.0/3.0), 노란 피부의 사람(7.5YR7.0/4.0), 붉은 피부의 사람(2.5YR6.0/4.0), 검은 피부의 사람(5.0YR6.0/4.0)으로 나누어 피부색 보정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문제성 피부의 실험대상으로는 하얀 피부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7.5YR8.0/3.0), 흰 피부에 주근깨와 다크서클이 있는, 노란 피부에(7.5YR7.0/4.0) 주근깨와 반점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흰 피부에(5.0YR8.0/3.0) 기미가 있는 사람을 선정 하였다.

연구 결과는 비교 사진으로 제시하였는데 동일한 타입의 피부색에 대해 보정 전 사진과 보정 후 사진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촬영은 동일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주요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진 촬영은 같은 장소에서 단일의 카메라(CANON eos1-1)로 색온도를 맞추기 위한 동일한 표준 광원(5500K, 사진전구, 도시바)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맑은 날 정오 무렵의 태양광 아래에서 보는 효과와 동일하며 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사용 필름 또한 데이라이트(daylight) 타입의 동일한 브랜드의 필름(코닥, ISO, 200)으로 제한하였다. 배경색은 모두 흰색으로 통일 하였으며, 피험자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어 상반신 촬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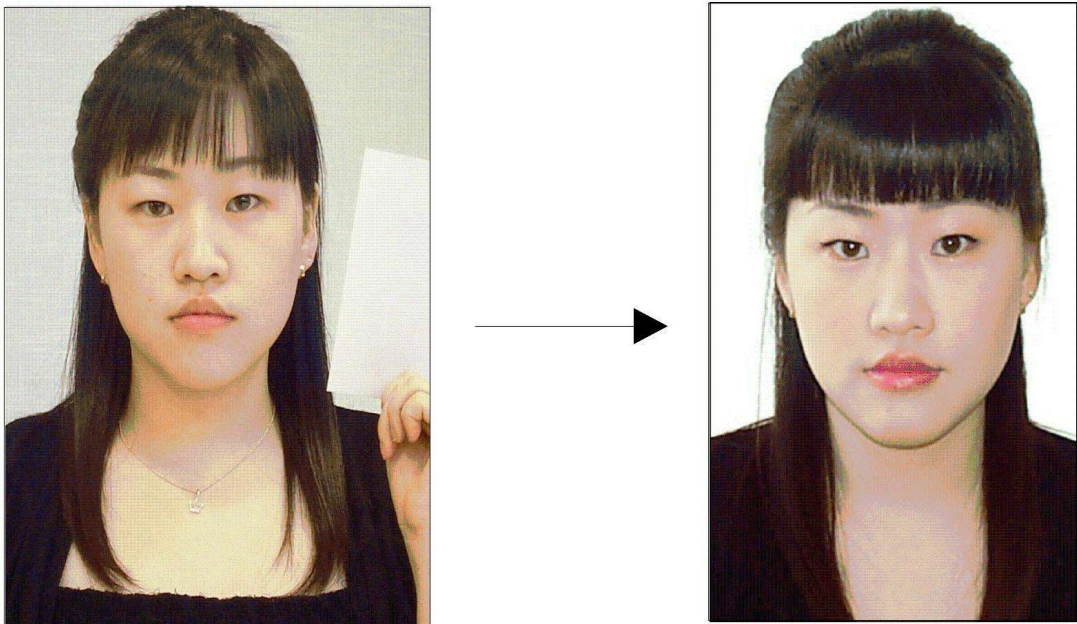
3) 실험 적용

① 실험모델 A, 흰 피부(7.5YR8.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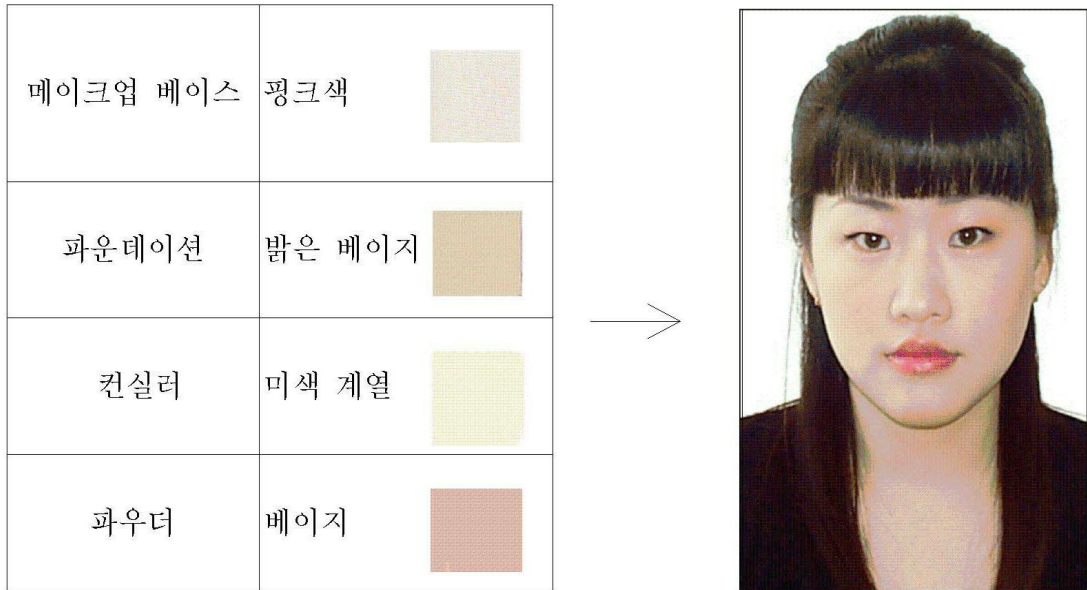
A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황갈색의 흰 피부 ((7.5YR8.0/3.0)로 진단을 받았다.

하얀 피부가 다소 창백해 보이고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일 수 있는 피부표현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을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1> 흰 피부,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도 1> 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흰 피부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흰 피부는 다소 창백해 보이고 아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혈색이 좋아 보일 수 있는 피부표현을 하였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서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발라 주었다. 또한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우더 중 한 가지를 핑크빛이 도는 색을 선택 하여 자연스럽게 화사함을 연출 하였다.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우더 두 가지 제품 모두를 선택 하여 적용한 결과 혈색이 도는 건강 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화사한 느낌보다는 부자연스럽고 피부색이 너무 붉어 보이고 얼룩져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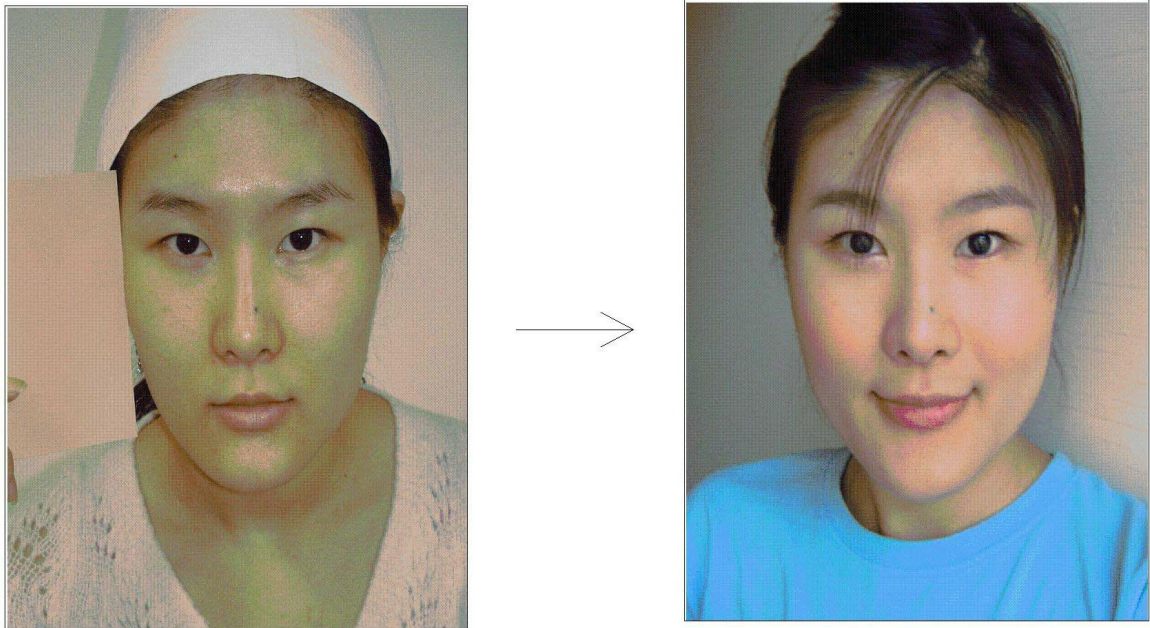
이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피니싱 파우더 중 한 가지만 선택 하여 피부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느낌과 화사함을 동시에 표현 되었다.

2) 실험 모델 B, 노란 피부(7.5YR7.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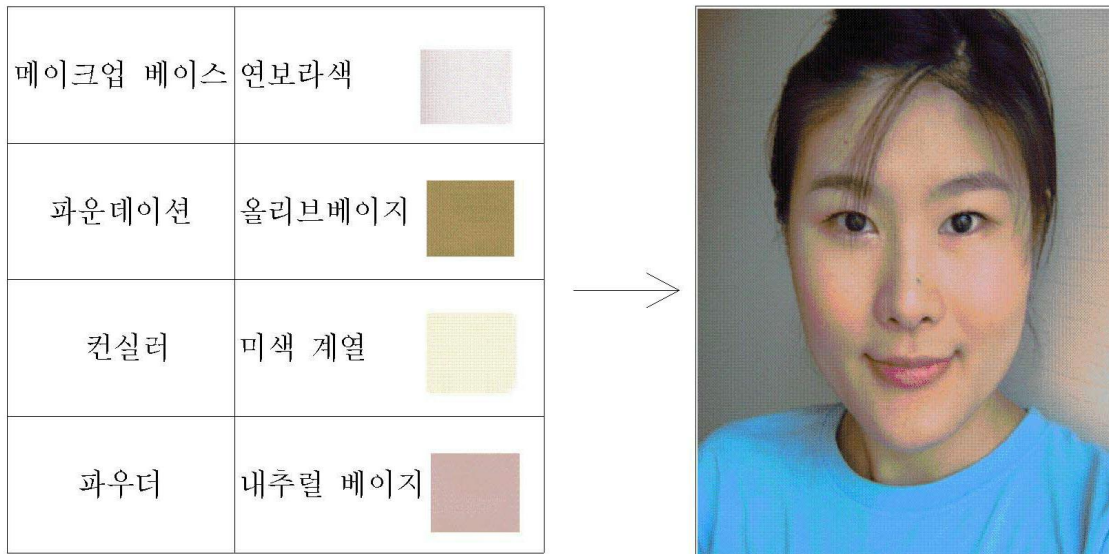
B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황갈색의 피부 ((7.5YR8.0/4.0)로 진단을 받았다.

노란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화사한 이미지로 연출을 하여 생기 있게 보이도록 연출 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을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2> 노란피부, 실험 모델 B,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도 2> 노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노란 피부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노란 피부 역시 너무 칙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화사한 이미지로 연출을 하여 생기 있게 보이도록 연출 하였다.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을 중화시키는 연보라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색을 보정 하였다

파운데이션 역시 크림 타입 보다는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써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였다. 이 피부 역시 노란 피부색을 보정 하려고 피니싱 파우더와 메이크업 베이스 모두 같은 보라색을 썼지만 얼굴에 화사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너무 창백해 보여서 더욱더 아파 보였다.

이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피니싱 파우더 중 한 가지만 선택 하여 피부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느낌과 생기 있게 표현 되었다

3) 실험 모델 C, 붉은 피부의 사람(2.5YR6.0/4.0)

C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핑크계열의 붉은 피부(2.5YR6.0/4.0)로 진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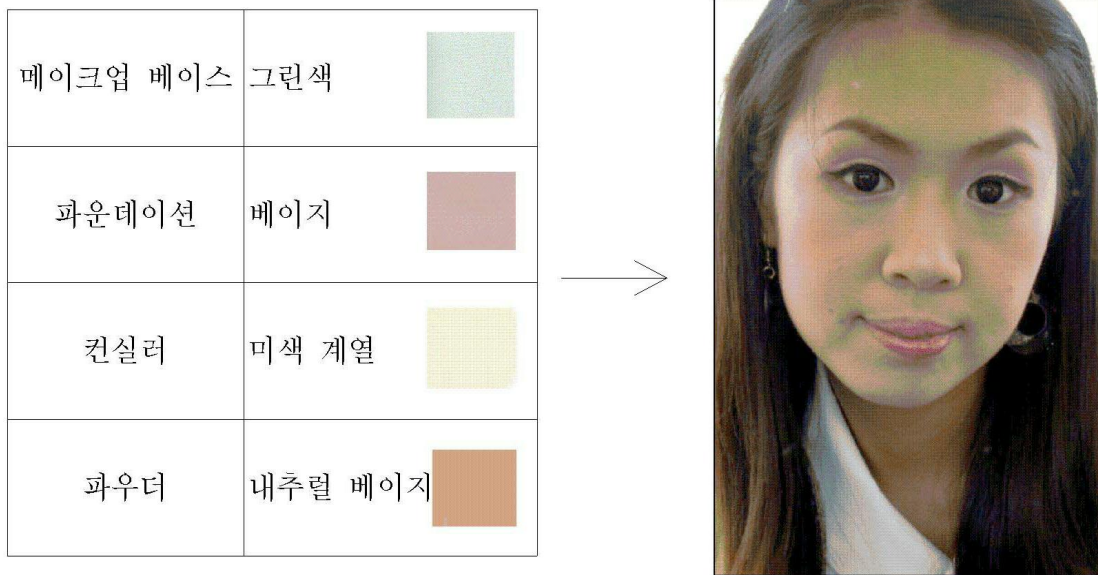
붉은 피부는 우선 얼굴에 붉은 기를 보정하여 다소 흥분 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깨끗한 이미지로 연출 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을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을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3> 붉은 피부, 실험 모델 C,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도 3> 붉은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붉은 피부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붉은색의 피부를 보정하기 위해서 녹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다. 일차적으로 메이크업 베이스로 보정 시켜놓은 피부색을 노란색의 베이지계열의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으로 정리 시켜 주었다. 그리고 컨실러를 크림 타입의 컨실러를 이용하여 붉은색의 부분을 커버시켜 주었다. 파우더 역시 옐로가 가미된 베이지로 마무리를 해주었다. 하지만 적용 결과 메이크업 베이스 양을 너무 많이 바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파운데이션도 두껍게 발라지고 잘 섞이지도 않고 피부 표현이 밀리고 들떴다.

이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잘 펴 바르고 컨실러의 양도 너무 두껍지 않게 해야 한다. 붉은색을 커버하려고 너무 두껍게 커버하면 오히려 더 부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한다.

4) 실험 모델 D, 어두운 피부(5.0YR6.0/4.0)

D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내추럴계열의 어두운 피부(5.0YR6.0/4.0)로 진단을 받았다.

어두운 피부는 섹시하지만 자칫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다. 칙칙한 피부톤을 살아나도록 화사한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을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4> 어두운 피부, 실험 모델 D,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메이크업 베이스	노란색	
파운데이션	베이지	
컨실러	미색 계열	
파우더	골드톤의 베이지	



<도 4> 어두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어두운 피부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보정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은 옐로계열의 베이지계열로 발랐다.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색으로 컨실러로 얼굴의 윤곽을 주었고 골드톤의 파우더로 화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하였다.

하얗고 뽀얀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를 골드 계열의 펄감이 있는 색을 사용하였더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었다.

이에 어두운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얼굴의 피부색과 너무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목과 턱의 경계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두운 피부를 밝게 표현하기 위해 너무 밝게 표현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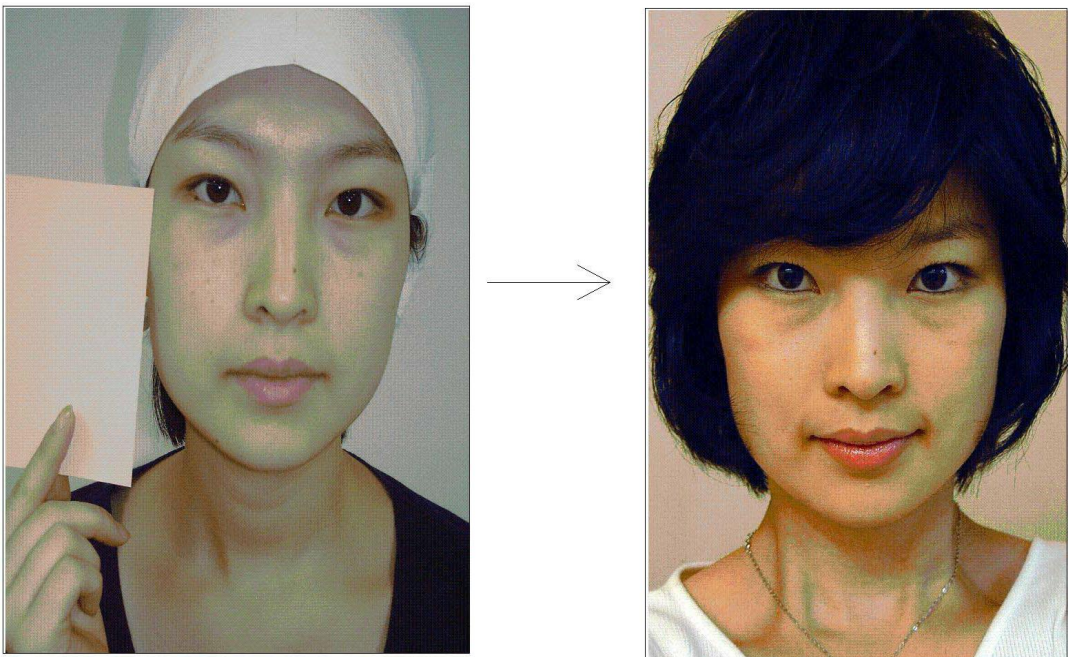
3.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을 활용한 문제성피부의 피부색 보정

1) 실험 모델 A, 다크써클의 문제성 흰 피부((7.5YR8.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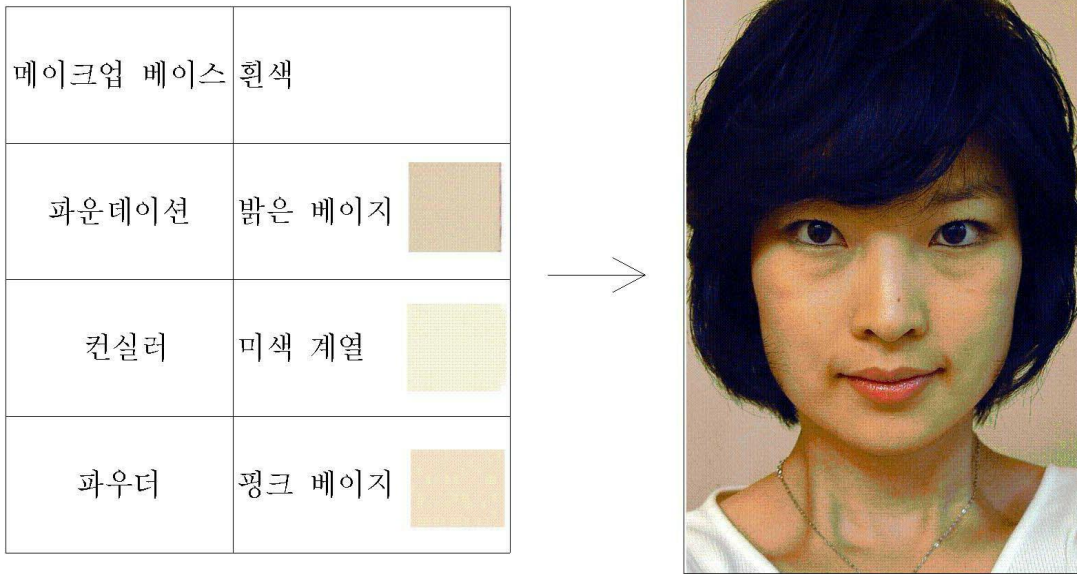
A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황갈색의 흰 피부 ((7.5YR8.0/3.0))에 다크써클이 있는 문제성 피부로 진단을 받았다.

이 모델의 경우 문제성 부위인 다크써클의 부분을 결점 커버를 하여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색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 결점 부위 커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5> 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도 5> 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문제성 피부의 다크써클과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A모델의 경우 창백해 보이는 하얀 얼굴에 다크써클이 있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소프트한 화이트나 투명 컬러를 발라 피부색을 정리 해주었다.

다크써클 부분이 주름이 지고 건조하여 피부에 빨리 스며드는 가벼운 느낌의 아이크림을 소량 발라서 눈 밑 피부를 부드럽게 하였다. 다크써클의 결점 보정을 위해서 베이지계열의 컨실러를 다크써클에 적용한 결과 다크써클 보정 부분이 칙칙한 회색으로 보였다. 제품색상을 옐로 톤으로 바꾸어서 적용한 결과 결점부위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었다.

피부의 보정으로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우더 색상까지 핑크색을 쓴 결과 어색한 피부 톤과 너무 창백해 보였다. 파우더 색상을 피치 컬러를 적용 한 결과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이 되었다.

2) 실험 모델 B, 주근깨, 다크써클의 문제성 흰 피부(7.5YR8.0/3.0),

B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황갈색의 흰 피부 (7.5YR8.0/3.0)에 다크써클과 주근깨가 있는 문제성 피부로 진단을 받았다.

이 모델의 경우 문제성 부위인 주근깨와 다크써클의 결점 커버를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색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 결점 부위 커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연구 진행을 하였다



<사진 6>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B,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메이크업 베이스	핑크색+보라색	
파운데이션	베이지	
컨실러	미색 계열	
파우더	핑크빛 베이지	



<도 6> 주근깨와 다크써클이 있는 문제성 피부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문제성 피부의 다크써클과 주근깨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B 모델의 경우 창백해 보이는 하얀 얼굴에 다크써클이 있었고 주근깨까지 있는 문제성 피부에 맞게 우선 메이크업 베이스를 핑크색과 퍼플색 메이크업 페이스를 손등에 덜어 컬러를 믹스하여 발랐다. 주근깨를 가리려고 크림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바라 주었다. 결점 부위를 컨실러를 이용하여 커버하였는데 다크써클의 경우 베이지계열을 다크써클에 발랐을 때 칙칙한 회색으로 보여서 다시 옐로계열의 컨실러를 선택하였다.

이에 문제 부위를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고 파운데이션으로 커버 했을 경우 너무 두꺼워지고 얼룩이 생겨 피부 톤이 고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크써클과 주근깨의 커버를 위해서는 반드시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문제부위 커버를 하여야 한다.

3) 실험 모델 C, 기미, 잡티의 문제성 흰 피부(5.0YR8.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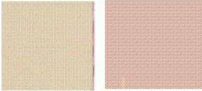

C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흰 피부 (5.0YR8.0/3.0)에 기미와 잡티가 있는 문제성 피부로 진단을 받았다.

이 모델의 경우 문제성 부위인 기미와 잡티의 결점 커버를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색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 결점 부위 커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7> 문제성 피부의 실험 모델 C,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메이크업 베이스	핑크색	
파운데이션	밝은 베이지	
컨실러	미색 계열	
파우더	핑크+베이지	



<도 7> 기미, 주근깨가 있는 문제성 피부에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문제성 피부의 기미와 잡티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C 모델의 경우 피부 보정으로 핑크색의 메이크업베이스만 발라 주었다 .파우더 색상까지 보라색을 쓴 결과 어색한 피부 톤과 너무 창백해 보였다.

파우더 색상을 핑크가 섞인 피치 컬러를 발라 주었을 때가 자연스러운 피부 톤으로 어색함이 없었다.

파운데이션으로는 커버력이 뛰어나고 빛 반사색소를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였다. 파운데이션은 펄이 약간 함유된 파운데이션을 써서 피부에 화사함을 주었다. 또한 컨실러로 너무 두껍지 않게 문제 부위를 커버 하였으며 파우더도 두 가지 색으로 섞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였다.

4) 실험 모델 D, 주근깨, 검버섯, 반점의 문제성 노란 피부(7.5YR7.0/4.0)

D 모델의 경우 피부색 진단결과 황갈색의 피부 (7.5YR7.0/4.0)에 얼굴에 반점과 주근깨가 있는 문제성 피부로 진단을 받았다.

이 모델의 경우 문제성 부위인 주근깨, 잡티, 검버섯의 결점 커버를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피부색 보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색 진단과 피부색 보정, 결점 부위 커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연구진행을 하였다



<사진 8> 실험 모델 A, 피부색 보정 전과 후의 모습

메이크업 베이스	연보라색 
파운데이션	올리브베이지  
컨실러	미색 계열 
파우더	베이지 + 보라  



<도 8> 주근깨, 반점이 있는 흰 피부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적용

문제성 피부의 주근깨, 검버섯, 반점의 피부색 보정 과정은 <도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적용, 진행하였다.

이 타입의 경우 얼굴의 주근깨와 눈 밑의 반점을 그리고 검버섯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주근깨 부분과 반점, 검버섯을 가리기 위해서 크림 타입의 옅은 올리브 베이지 컬러를 발랐다. 주근깨부위가 많으므로 짙은 파운데이션으로 다시 피부색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 후 두드러지는 부분만 커버 하였다.

적용결과, 파운데이션으로는 결점 커버가 피부톤이 두꺼워지고 어색하였으며, 반점의 경우 반점 부분이 지저분해 보이고 뭉쳤다. 컨실러 사용과 파우더를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연 보라색의 파우더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하였을 경우 피부색을 차분하게 정리 시켜주는 베이지색을 사용 하였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웠다.

IV. 결론 및 제언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의 열망이 점점 커지고 그에 대한 애정 또한 강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대기 오염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피부에 부담감이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고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기능성 제품이 탄생되고 피부과적 치료를 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백옥미인이 되기 위한 지속적 관리로 조금씩의 변화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장 내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을 요구한다. 심지어 근본적인 피부 개선 방식인 피부과적 치료조차도 그들은 길게 느끼고 있으며 그 만만치 않은 비용 또한 그들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에 의해 메이크업이라는 즉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더 많이 선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피부 자체가 아름다우면 더할 나위 없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지 못하며 이는 피부를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가 되고 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완성도와 전체적 표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꿈꾸는 깨끗하고 고운 피부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다. 더 나아가 얼굴형까지 수정 보안 시켜주며 피부가 가지고 있는 결점까지 가려 주어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의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개

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실제 적용 실험을 실행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피부색 보정을 위해 모든 베이스 메이크업 과정에서 피부색의 보색이 되는 색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색 보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보정 색 계열로 수정하면 피부 톤이 어색해지고 자칫 눈에 너무 튀어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했다. 메이크업 베이스나 피니싱 파우더 중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기 피부에 맞는 일반적인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피부색으로 표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컨실러는 항상 자기가 선택한 파운데이션이나 자기 피부색보다 한 톤이나 두 톤 정도 밝은 옐로컬러의 컨실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얗거나, 핑크색이거나, 회백색이거나 또는 유분이 많은 것은 컨실러를 사용하였을 때가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어색해보이고, 심지어 가리고 싶었던 결점을 오히려 강조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노란기가 도는 피부색이기 때문에 크림리한 질감의 노란색의 컨실러를 적용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결점 커버가 되었다.

셋째, 문제성 피부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만으로 커버를 할 경우 피부표현이 두꺼워지고 부자연스러웠으며 멍치는 결과가 나왔다.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의 기능으로만은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했다.

넷째, 피부의 주근깨, 기미, 다크써클, 반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모두 컨실러 제품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컨실러는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을 감춰 주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크써클에는 피부색보다 한 단계 밝은 컨실러가 적절

한데 똑같은 방법으로 여드름 부위나 잡티에 발랐을 때는 오히려 결점 부분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도리어 파운데이션이 여드름과 잡티에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다섯째, 파운데이션의 경우 자신의 피부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리고 얼굴의 결점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를 잘 선택 하여야 했다. 우선 피부색을 보정할 경우에는 리퀴드 형이나, 크림형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의 결점을 커버할 경우 스틱형이나, 빛 반사 함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는데 이는 리퀴드 타입이나 크림 타입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은 되지만 결점을 커버하기에는 커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스틱형의 경우는 커버력이 좋은 반면 자칫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했다. 제품의 특성과 효능을 잘 파악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피부보정을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는 자신의 피부 톤과 자신의 피부 타입에 적절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들을 선택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연구를 정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좀 더 다양한 인종과 문제성 피부의 실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몇몇 사람에게만으로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인종 및 문제성 피부에의 적용을 통해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싶다. 또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베이스 메이크업의 기술 연구 및 개발로 인해 문제성 피부를 넘어서 얼굴의 화상이나, 흉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간편한 메이크업을 통한 효과적인 피부개선으로 그들이 원만한 사회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헌

<국내문헌 >

- 강경화, 「메이크업 총론」, APC (Artistic Publishing company), 2002
- 강근영 외3역, 「Make-up Design」, 서울 훈민사, 2003
- 김광숙 외3역, 「THE MAKE UP」, 도서출판 예림 2002,
- 김기연 외9역, 「피부과학」, 발행인, 주용식 서울 수문사 2001,
- 김병우, 「피부과학, 향장품학」, 서울 유신문화사, 1993
- 김봉인 외4역, 「피부과학」, 서울 형설 출판사, 2001
- 김상우, 「바이오 코스메틱 연구와 실습」, 중원 코스메틱, 1999
- 김영희 외, 「토틸 메이크업」, 서울 정문각, 2001
- 김희숙 외, 「뷰티 & 스페셜 메이크업」, 서울 신정, 2002
-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 박보영외, 「메이크업 아트」 서울: 청구문화사 2002
- 라사라 교육계발원, 「메이크업& 하이헤어」, (주)라사라 패션정보, 2000
- 사단법인 한국색채학회, 「컬러리스트 이론편」, 도서출판 국제, 2002
- 신단주, 「How to make up artist」, 서울: 삶과 문화, 2002
- 한명숙. 「마귀아쥬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1999,
- 조기여외6역, 「피부과학」, 서울: 도서출판 성화 2001,
- 이경민, 「이경민 뷰티 메이크업 북」, 서울: 김영사, 2001
- 리즈 와일드, 「얼굴」, Joy & Pleasure, 2003
- 최민령 외 4역, 「The Beauty Make-up」, 서울 ;예림, 2004
- 김남희, 「Base Make-up」, 서울: 예림, 2003

김덕록, 「화장품과 화장품」, 서울: 도서출판 답계, 1997
김희숙, 「신화장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2003
한국 색채학회, 「색이 만드는 미래」, 서울 국제, 2002,
이상봉 외1,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청구 문화사, 2004
김용훈, 「색채와 디자인」, 서울 세진사, 1994

<논문>

신향선,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 대학교대학원, 2002,
우윤정, ‘한국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 대학교 대학원, 1999
이혜정, ‘현대 트렌드 분석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헤어와 피부색조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4
이민아, ‘한국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오은경,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대학원, 1990
이선주,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효과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0
김영은,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제한’ ,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2003

<단행본>

김경순, '피부색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의 이론적 고찰', 한국 미용학회지, 1999

유영미,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2002

설현진, 피부색 보정을 통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피부표현 기법 연구, 한국 인체예술학회지, 2003

김경순, '피부색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색상의 이론적 고찰' 한국 미용학회지, 1999

1996모터스라인, 현대자동차, 2002,

중앙 일보사, 메이크업, 「중앙일보사」, 1995, p.51

<외국문헌>

Kevyn Aucoin ,Making faces ,Little Brown ,1997

Bobbi Brown, Beauty Evolution, Harper Collins, 2002

Makeup Your Mind By Francois Nars, Nars Cosmetics, Inc. 2001.

Diana Lewis Jewell, Making by Rex,Clarkson Potter/Publishers New York,1986

HARRIET T. McJIMSEY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1973,

Caral Mason Mathis & Helen Villa Connor, The Triumphs of Individual Style, Cail, Colombia, 1994

Grimas, Make-up voor professional en hobby, Haarlem. 1992

JoAnne Nicholson, Judy Sewis-Crum, Jacqueline Thompson, Color Wonderful, Bantam Books, 1986

Jackson, Carole, Color me beautiful. Canada:Acropolis Book, 1980,

ABSTRACT

On the Reformation of Skin Color by the Application of Base Make-up and the Analysis of Complex Type of Skin

Tae Dong Sook

Major 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skin color by the application of a base make-up based on the contrast in color and to give confidence in achieving the fair and clear tone of skin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 complementary color.

Since the primitive age the make-up has been the important ways of expression for the means of both self-protectiveness and decorativeness. The human kind's interests in beauty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of the society since the start of human civilization. Specially, women are likely to show their state of mentality through the change of their look, and to form a self-image through visual expressions. With women's more opportunity to work in public areas and the development in science, their desire for beauty had an influence on the trend of the make-up as well as the new trend of fashion.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hen the concerns about environment is in increase, a natural way of make-up comes into fashion. So women are longing for representing their fair and clear complexion, even though their freckles and spots are exposed.

Women's desire for having fair complexion has brought the development in cosmetics business. We are now given the development of cosmetics specialized in dealing with skin's abnormality, the information on daily care for the better skin, the advance of base make-up products, and the better treatment of skin.

Among them, women are quite interested in base make-up products which can bring the great effect to reform the skin in a very short time. Specially those who have complex skin type take so much interests in getting the fastest benefits from the application of a base make-up, rather than in finding a permanent cure for their skin.

It is possible to cover defects naturally and to show off fair complexion by using base make-up products. The conventional way of application of a base make-up which leaves the skin quite uncomfortable became old-fashioned. It is a modern trend that it focuses on the smooth and natural skin with the little or proper application of a base make-up.

For the smooth and natural skin, it is not recommendable to use the products with strong covering effect, but to use the products with high reforming effect. The reformation of the skin defect by using a color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make-up.

Make-up reveals the desire for beauty and the expression of a self-image.

By using ultimate optical illusion, we express our beauty with make-up on. The make-up also gives stability and confidence through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in color.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on taking proper examination on the skin, and to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It also g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match of colors and a base make-up which is based on it.

Firstly, there are no changes in aesthetics of colors which emphasize the basic beauty, though the way of thinking is changeable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culture. I try to systemize the colors which are used the most frequently. Secondly, it provides the information of what kind of base make-up products we have, and of how we apply them. Thirdly, it expresses healthy and clear complexion by using a base make-up. I attempt to research representation of the skin by reforming skin color with the base make-up application in order to help women live more beautiful and confident lives than ever before.